

# 5·18의 의미와 미래 방향, 현장에서 답을 찾다

## - 박홍근 장관, '5·18 보훈단체' 및 '광주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개최 -

- 5·18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보훈단체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여 지역 예술인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청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18일(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 후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하여 5·18 3개 단체장\*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여 5·18 역사공간인 옛 전남도청 전시관 최초 개관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문화거점기관으로서 문화전당의 역할을 위한 지역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8(월), 16:30 ~ 17:30 / 5·18기념문화센터(광주광역시)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장관, 사회예산심의관, 보훈부 차관 등  
(지자체) 광주시장  
(5·18보훈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박홍근 장관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데 있어 역사적 의미가 깊으며 역사적 교훈과 숭고한 희생정신 계승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역할에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에서 앞장서서 수행해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보훈 정책방향도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며 “정부도 5·18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5.18 3개 단체장은 “법정 보훈단체 중 5·18 단체만 유일하게 중앙회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회관 건립에 대해 건의하였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5·18 단체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 및 위상강화를 위해 중앙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장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교육, 취업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제기된 현장의 의견은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시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의미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홍근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예술인 및 문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특히 장관은 문화전당이 공연·전시·창작·문화교류 기능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전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신규사업인 ‘빛의 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문화전당의 상징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민주화 역사 공간인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결실을 맺어 오늘 전시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예산실 인적자원예산과	책임자	과 장	최진광 (044-214-2530)
		담당자	사무관	최현규 (81chk@korea.kr)
	예산실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성주 (044-214-2550)
		담당자	사무관	박성현 (esther.father@korea.kr)
			사무관	성호영 (hysung0125@korea.kr)

